

한국도 놀란 潘의 힘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 현장과 시각 ■

名作을 향유할 자격



김주성
사회부 차장

기원(祈願)은 인간의 소망을 하늘에 호소하는 과정이며 행위이다. 국어 사전엔 '바라는 일이 이루 어지기를 벗'이라고 나온다. 옛 어머니들이 장독대에 정화수(井華水)를 떠놓고 두 손을 마주하던 모습을 기억하는 이들이라면, 기원이라는 두 글자가 함축하는 의미를 익히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광주에서 그러나, '기원'은 '애까심'(애가심·끌etcher)이 됐다. 142만 광주시민들이 생활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시청 앞 광장에다.

문화수도로 지향하는 광주시가 '미래도시 광주'의 상징물 '기원'을 시청 광장에 설치한 것은 지난 해 10월 17일, 제1회 디자인비엔날레의 특별전시 작품 중 하나로 기획됐다. 이탈리아의 디자인 거장 알레산드로 멘디니(Alessandro Mendini)가 제작한 이 오브제(object)는 하늘거리는 부채살 같은 팽팽이 무늬를 자랑하며 '디자인 메카' 광주의 출현을 전 세계에 알렸다.

그러나 그 뿐이었다. 높이 20m의 7개 탑으로 된 이 조형물은 당초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1월), 겨울(12월~2월) 각 계절별로 다른 옷(Skin)을 입도록 디자인됐다.

하지만 지난 6월 붉은 태양을 형상화한 여름 옷인 '나래'(WING) 대신 가을 옷 '하늘 위의 팽팽이'(DOTS IN THE SKY)를 입고 시민들을 맞았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 6·15남북축전이 열리고 있는데 시청 앞 광장에 붉은 색이 나부끼면 광주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당시 광주시 고위 간부의 지시에 의해서였다.

'하늘 위의 팽팽이'는 강한 햇빛과 강풍에 시달려 팽팽이 무늬가 대부분 떨어져 나가 뜯쓰게 됐다. 제 철인 가을이 됐을 땐, 여름 옷이 내걸렸다. 계절별 옷 한 벌을 새로 마련하는데 드는 3천500만 원을 감당할 수 없어서다.

'기원'을 관리하는 광주시 관계자는 '침말로 애까심이요. 청사관리비는 쥐꼬리만한 데 저걸 어떻게 철 따라 관리한다요?'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하지만 '문화수도' 광주가 '철 없는 광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지난 2일 제 철 옷인 '하늘 위의 팽팽이'를 다시 입혔다.

서울 업체에 300만 원을 주고 급 보수했다고 한다. 다행이다.

'기원'이 로마의 트레비 분수처럼 소망을 비는 명소가 됐으면 하는 것은 자나친 바람일까? '청사(廳舍) 관리' 수준을 넘어서 문화수도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관리되기를 기원해 본다.

/jjnews@kwangju.co.kr

겸손·성실함 갖춘 '미소 외교관'

■ 반기문은 누구

천지개벽한 '개천절' 날 유엔 사무총장직에 사실상 내정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부드러움과 강인함을 결합한 인물로 통한다. '부드럽지만 안으로는 독하고 독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외유내강에 강이 하나 더 불은 '외유내강(外柔內剛)' 형으로 불린다.

미소를 머금은 따뜻한 표정과 매너처럼 반 장관은 일로 충돌해도 절대 큰소리를 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면서도 한번 마음 먹은 일은 반드시 이루는 강한 의지를 가졌다는 게 주변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반 장관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그다지 '재미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일'에만 몰두하지 그 밖의 것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워커홀릭(workaholic)이다. 특별히 휴가를 가지도 않는다.

대학 때는 전공 이외에 영어와 프랑스어 등의 공부

에 집중했던, 요즘 말로 '범생'이었다. 그는 일찌감치 외교관을 꿈꿔왔다고 말하고 있다. 충주고 재학 시절, 갈고 닦은 영어 실력으로 미 정부가 주최하는 영어 응변 대회에 나가 입상, 부상으로 그 시절 미국 구경의 기회를 갖기도 했다.

그 때 1962년이었다. 반 장관은 대회를 주최한 미국 적십자사의 주선으로 존 F. 케네디 당시 미국 대통령을 접견했다.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면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을 때 외교관이라는 꿈을 다졌다"고 회상한다.

그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제3회 외무고시에 합격, 1970년 5월 외무부에 들어와 40년 가까이 외교관의 길을 걸고 있다.

외교부 내에서 그는 '특별히 기수가 없다'고 해서 '특기'로 통한다. 상하좌우의 모든 인사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그는 '성실함'으로 유명하다. 한 전직 장관은 "반기문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관운이 좋았다.

외교부에서 차관보, 차관 등의 요직과 청와대의 외교

안보수석비서관과 외교보좌관을 거쳤으며 마침내는 참여정부의 두 번째 외교통상부 장관 자리에 올랐다.

반 장관은 한 때 '주사'라는 별명을 갖기도 했다. 고위직이면서도 그 직급에 관계없이 자질구레한 일도 손수 험겼다는 데서 붙여진 별명이라고 한다. 배려가 몸에 배운 탓인지 지금도 부하 직원에게 출입문을 열어주는 친절을 베풀어 상대를 당황스럽게 하기도 한다.

이와는 달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절두절미하고 솔선수범형으로 통한다. 그러나 부드러운 어법을 사용하고 질책하는 일은 거의 없어 부하 직원들이 보고를 끼리는 일은 없다고 한다.

반 장관은 작년 10월 정부가 내부 논의 절차를 거쳐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확정한 뒤 조용하면서도 철저하게 전 세계의 마음을 사기 위해 뛰고 또 뛰었다.

반 장관은 충주고와 충주여고간 학생회장단 간부 교류로 만난 유순태 여사와의 사이에 선용과 협회를 얻은 그는 '성실함'으로 유명하다. 한 전직 장관은 "반기문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관운이 좋았다.

외교부에서 차관보, 차관 등의 요직과 청와대의 외교



1962년 고교 3학년 때 미국 적십자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 케네디 대통령을 만난 반기문 장관(원안). 반장관이 외교관의 꿈을 키운 계기였다.

■ 사무총장 확정까지 남은 절차

9일 본투표 거쳐 총회 인준

유엔 사무총장 선출과정은 크게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후보에 대한 이사국들의 대체적인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예비투표(straw poll)와 법적인 절차인 본투표, 총회의 추인과정이 그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간) 4차 예비투표를 마친 뒤 9일 본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선출 절차가 2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투표는 4차 예비투표와 마찬가지로 한 후보가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9표 이상을 득표하면 총회에 차기 사무총장 단일후보로 추천된다.

안보리 이사국들이 결장에 따라서는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후보를 추대할 수도 있다. 총회는 안보리가 추천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총회 일정을 결정하며 대부분의 경우 안보리 추천사실을 공개한 뒤 박수로 추인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회원국이 투표 절차를 요구하면 투표에 들어갈 수는 있으나 지난 1971년 이후 전례가 없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실제 총회에서 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연합뉴스

유엔 실질적 수장 '외교가의 교황'

■ 유엔 사무총장 어떤 자리

유엔 사무총장직은 '외적 화려함과 내적 고통'이라는 양면성을 가진 세계 최고의 외교관이다.

국가 원수에 준하는 예우를 받으며 지명도에선 미국 대통령에 버금가고, 도덕적 권위면에서 교황의 권위에 종종 비유되면서도 늘 '치어 리더' '고해 신부'라는 수식어가 붙어다는 것도 그 이유에 서다. 사무총장의 영어 표현인 'SG'(Secretary of General)가 왕왕 '속죄양'(scapegoat)으로 불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의 실질적 수장으로서 전세계 192개 회원국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공평무사하게 풀

어내야 하는 고난도 외교력이 요구되는 유엔 외교의 사령탑이다.

평화유지활동, 군비축소활동, 국제협력 증진 등 사무총장의 역할은 유엔의 존재 이유와 맞닿아 있다. 유엔 사무총장을 '지구촌 재상(宰相)'으로 칭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유엔 현장은 사무총장 신분에 대해 유엔 사무국의 수석행정관으로서 사무국 직원 3000여명을 지휘하며 업무수행에 있어 어떤 정부나 기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국제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연봉은 1997년 이래 22만 7253달러(약 2억원)로 책

정돼 있다. 판공비, 판사, 경호 등도 제공받는다. 다만 뉴욕의 총장 관저를 1년에 1달러만 내고 사용하는 특권도 누린다. 이 관저는 미국 유엔협회가 지어 상징적인 임대료만 받고 사실상 무료로 살게 해주는 셈이다.

그러나 사무총장은 힘의 논리를 앞세운 국제사회에서 역할이 크게 축소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 까다로운 5개 상임이사국들의 입맛을 맞춰 가면서 약소국들의 사정도 두루 살펴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그만큼 내적 고민과 고통이 수반되는 자리가 아닐 수 없다.

/연합뉴스

그는 차기 사무총장 단일후보로 추천된다.

안보리 이사국들이 결장에 따라서는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후보를 추대할 수도 있다. 총회는 안보리가 추천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총회 일정을 결정하며 대부분의 경우 안보리 추천사실을 공개한 뒤 박수로 추인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회원국이 투표 절차를 요구하면 투표에 들어갈 수는 있으나 지난 1971년 이후 전례가 없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실제 총회에서 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